



카카오, 지역과 방문객 잇는 상생사업 '곳' 선포

카카오가 지역 상권과 방문객을 연결하는 신규 상생 사업 '곳'을 선보인다. 카카오는 공주 지역 가게의 이야기를 담은 '매거진 곳곳 공주'를 발간하고 신규 상생 사업 '곳'을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곳'은 카카오가 2022년부터 운영해온 소상공인 지원 사업 '프로젝트 단골'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사업이다. /카카오



에쓰오일, 장애인 자립 돕는 '감동의 마라톤' 후원

에쓰오일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마라톤 대회를 후원하며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자립 지원에 힘을 보탰다. 에쓰오일은 지난 4일 서울 마포구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열린 '감동의 마라톤'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6일 밝혔다. 지난 4일 서울 마포구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열린 '감동의 마라톤'에서 참가자들이 힘차게 출발하고 있다. /에쓰오일



롯데백화점, 주류 바이어 첫 '와인 기사' 탄생

롯데백화점은 와인&주류팀 최준호 바이어가 지난달 프랑스 생테밀리옹 지역의 와인 기사 작위인 '쥐라드 드 생테밀리옹(Jurade de Saint-Emilion)'을 수훈했다고 6일 밝혔다. 롯데백화점 주류 바이어가 와인 기사 작위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롯데쇼핑



광동제약, 비타500 새 얼굴에 '악뮤' 발탁

광동제약은 '비타500'의 신규 모델로 그룹 '악뮤(AKMU)'를 발탁하고, 악뮤가 직접 작성한 메시지를 라벨에 적용한 '비타500 악뮤에디션'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모델로 선정된 악뮤는 독창적인 음악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남매 듀오다. /광동제약

정식품 '당뇨병의 날' 만보걷기 캠페인

정식품이 세계 당뇨병의 날을 앞두고 일상 속 걷기를 통해 혈당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정식품은 6일부터 11월 14일까지 헬스케어 플랫폼 닥터다이어리와 함께 '그린비아 만보 걷기 챌린지'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오는 11월 14일 세계 당뇨병의 날을 계기로 당뇨 환자와 혈당 관리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의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한 행사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현대차그룹, 강남 한복판에 '체험형 과학 전시' 첫선

'해브 펀 위드 사이언스' 개막 2032년 GBC 개관 앞두고 팝업

'과학은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해보는 것(물리학자 프랭크 오펜하이머의 철학)'

현대자동차그룹이 눈으로만 감상하던 기존 전시의 틀을 깨고 자연 현상과 물리 법칙을 온몸으로 확인하는 공간을 서울 강남 한복판에 마련했다.

현대차그룹은 6일 현대 모터스튜디오 오서울 5층에서 팝업 전시 '해브 펀 위드 사이언스(Have Fun with Science)'를 개막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대차그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조성하고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BC)에 건립할 대규모 체험형 과학관의 사전 검증 전시 공간으로 오는 12월 15일까지 두 달여간 무료로 운영된다.

이번 전시는 현대차그룹이 지난 4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세계적인 과학관 '익스플로라토리움'과 체결한 전략적 파트너십의 첫 실체적 결실이다. 1969년 물리학자 프랭크 오펜하이머가 설립한 익스플로라토리움은 관람객이 직



GBC 체험형 과학관 팝업 전시 '해브 펀 위드 사이언스(Have Fun with Science)' 미디어 프리뷰에서 현대차그룹 HMG브랜드경험담당 지성원 부사장이 발표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접 만지고 실험하는 '핸즈온(Hands-on)' 전시 방식을 세계 최초로 도입한 대표적 과학 교육 거점이다.

이번 팝업은 2032년 완공 예정인 GBC 체험형 과학관 개관에 앞서 국내 방문객의 반응을 살피고 콘텐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전시장에는 움직임·생태·빛과 소리를 주제로 한 기초 과학 체험형 전시물 12종이 들어섰다. 보드 위에서 균형 감각을 익히는 '아

슬이슬 균형 잡기', 도미노의 연쇄 작용을 활용한 '탈레이 놀이'를 비롯해 사막 능선의 형성 원리를 탐구하는 '바람이 빛아내는 풍경' 등이 대표적이다. 관람객이 직접 회로를 연결해 보거나 회전 운동으로 그림을 그리는 '드로잉 머신 워크숍' 등 상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지성원 현대차그룹 HMG브랜드경험담당 부사장과 앤 리처드슨 익스플

로라토리움 최고경영책임자(CXO)는 전시 취지와 협업 방향을 소개했다.

지부사장은 "GBC 체험형 과학관은 개인의 탐구 정신을 키우고 국내 과학 교육의 새로운 토양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많은 사람들이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한 체험형 과학 콘텐츠를 통해 과학에 호기심을 갖고 창의적인 경험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전시 기간 동안 국내 과학·창작 커뮤니티를 초청해 현장 피드백을 수집한 뒤 향후 GBC 과학관의 정규 콘텐츠 개발과 운영 방식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2032년에 문을 여는 현대차그룹 GBC 체험형 과학관은 아트관, 실험관, 예교관의 3개 관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총 300개의 체험형 전시물이 이곳에 배치되며, 현재 모터스튜디오 서울에 있는 12개의 전시물도 GBC 체험형 과학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고려아연, 최창걸 '사람·신뢰 경영' 계승

故 최창걸 명예회장 별세 1주기

고려아연이 고(故) 최창걸 명예회장 별세 1주기를 맞아 추모식을 열고 고인의 경영철학을 계승해 새로운 도약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고려아연은 6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최창걸 명예회장 1주기 추모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최윤범 회장을 비롯한 유가족과 이제중 부회장 등 고려아연 및 계열사 임직원, 고인의 지인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박기덕 사장은 추모사에서 "지난 1년간 고려아연은 안팎의 여러 변화와 도전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



고려아연이 6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본사에서 최창걸 명예회장 1주기 추모식을 엄수하고 있다. /고려아연

아갔다"며 "그 과정에서 명예회장님께서 세우신 경영철학과 기업가정신이 오늘의 고려아연을 지탱하는 튼튼한 뿌리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누리호, 발사대 기립·고정작업 완료

오늘 다섯 번째 우주 비행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다섯 번째 우주 비행을 하루 앞두고 발사대 기립과 고정 작업을 모두 마쳤다.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6일 오전 10시 35분 기준 누리호는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서 기립 및 고정 작업을 완료했다.

발사체종합조립동에 수평으로 놓여 있던 누리호는 특수 이송차량인 트랜

스포터를 이용해 약 1시간30분 동안 제2발사대로 옮겨졌다. 이후 이렉터를 활용해 수직으로 세우는 작업까지 마쳤다. 이날 오후에는 누리호와 발사대 설비를 연결하고 각 계통의 상태를 확인하는 후속 작업이 진행된다. 상황별 계획상 발사대 설치 절차는 오후 6시 45분쯤 마무리될 예정이다.

발사에정일인 7일에는 실제 비행을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김대환 기자 kdh@

현대차그룹, 웹사이트 경쟁력 입증

웹어워드 4개 부문 최우수상

현대자동차그룹은 공식 웹사이트가 미국 웹 마케팅협회(WMA)가 주관하는 '2026 웹어워드 컴퍼티션'에서 자동차·미디어·뉴스·PR 등 4개 산업 부문의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전체 출품작 중 하나의 사이트에만 부여되는 최고 등급인 '베스트 오브 쇼'에도 선정됐다.

웹어워드 컴퍼티션은 미국 WMA가 주관하는 글로벌 웹사이트 전문 어워드다. 글로벌 출품작을 86개 산업 카테고리별로 구분해 ▲디자인 ▲혁신성 ▲콘텐츠 ▲기술 등 7개 기준으로 심사

한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3월 공식 웹사이트의 디자인·콘텐츠 리뉴얼을 마치고 사용자의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다양한 인공지능(AI) 기능을 업데이트했다. 또 소프트웨어·전동화·수소에너지 등 내용이 담긴 '기술 혁신' 메뉴 업데이트를 통해 현대차그룹의 차세대 기술 비전과 산업 리더십을 더욱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앞으로도 AI와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더욱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협약식에 참석한 이호성 하나은행장(왼쪽 두 번째), 류경기 중앙구청장(왼쪽 첫 번째), 박상진 Npay 대표(세 번째), 최항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네 번째)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하나은행

하나은행·네이버, 서울 야간상권 살린다

687억5000만원 보증 지원

하나은행과 네이버가 서울 야간상권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기업을 위해 총 55억원을 출연한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이를 재원으로 687억5000만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공급한다.

하나은행은 네이버페이(Npay), 네이버,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시 야간경제·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의 '서울 달빛야

장' 조성사업과 연계해 야간상권 소상공인과 청년사업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은 서울 달빛야장으로 선정된 중앙구 상봉역자골목에서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하나은행은 50억원, 네이버와 Npay는 5억원 등 총 55억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한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을 바탕으로 총 687억5000만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공급하고, 하나은행은 재단이 발급한 보증서를 기반으로 보증부대출을 지원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